

우주정복의 길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사변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대성공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으시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으시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 참가한 일군들과 우주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주개발을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강그리 바치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뜨거운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새로 개발한 대출력발동기는 단일발동기로서 추진력은 80tf이다.

이번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은 작업시간을 200s로 하고 발동기연소실의 연소특성, 각종 변들과 조종계통들의 동작정확성, 구조민음성을 최종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험을 진행할때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순간 천둥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대출력발동기에서 거대한 불줄기가 세차게 뿜어져나왔다.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



발동기의 지상분출시험을 통하여 추진력을 비롯한 발동기의 기술적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되었으며 작업전기간 모든 계통들의 특성값들이 안정하게 유지된다는것을 완전히 확인하였다.

대출력발동기가 완성됨으로써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기간에 정지위성운반로켓을 확고히 개발완성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으며 지구관측위성을 비롯한 각종 위성들을 세계적수준

에서 발사할수 있는 운반능력을 원만히 갖출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험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당에서 준 과업을 훌륭히 결사관철한 국가우주개발군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주과학기술과 우주산업은 국력을 평가하는 중

요한 기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실현을 위한 우주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광활한 우주정복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주개발과 리용은 우리 당의 중요한 방침이며 국가적으로 계속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우주개발을 위성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며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각이한 용도의 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여 우리 나라를 가까운 몇해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이 관철되어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주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전례없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시험성과에 토대하여 위성발사준비를 다그쳐 끝냄으로써 적들의 비렬한 제재압살책동으로 허리띠를 조여매면서도 변심없이 우리 당만을 믿고 당을 따라 곳곳이 살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큰 승전소식을 안겨 주자고 당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고산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고산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과꽃이 활짝 피어났을 때부터 과일이 무르익은 오늘까지 원수님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일군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농장종업원들이 온 한해동안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고산과수종합농장에 어려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과일생산을 해마다 늘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의 령도밑에 펼쳐진 철령아래 사과바다에서 세세년년 과일과도가 세차게 일어나고 과일향기가 가득 넘쳐나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

시려고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여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르시었던 전망대에서 눈썹리 아득히 펼쳐진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고 과일밭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지마다에 탐스러운 열매가 정말 많이 달렸다고 하시면서 마치도 사과밭들에 빨간 물감을 들인것만 같다고, 철령아래가 온통 붉게 보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한 과일보관고를 돌아보시고 618건설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수천(능력)의 현대적인 과일보관고를 흠잡을데가 없이 훌륭히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의도를 받들고 고산과수종합농장을 세계굴지의 청춘과원으로 전면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그들

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에서 마련해준 료전기재와 지게차 등을 보아 주시면서 농장에 동력분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과수기계들을 더 보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고산과수종합농장이 올해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더 높이 비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과수의 기치를 들고나가는데서 전국의 앞장에 설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를 완전히 해결할데 대한 문제, 매분장들마다에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으며 과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할수 있도록 돼지목장들을 더 건설할데 대한 문제, 방울식관수체계를 완비하며 중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문제를 풀데 대한 문제, 현대적인 과일가공공장을 일떠세울데 대한 문제 등 농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게 과일을 풍족하게 공급하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고산과수가 생겨 처음 보는 과일대풍을 이룩하였다고, 이 농장은 당정책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전형단위, 모범단위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농장을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과수농장으로 더욱 훌륭히 전면시키며 과일생산에서 해마다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우주강국의 휘황한 앞날

우주는 인류공동의 재부이다. 무변광대한 우주공간에는 인류가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개발리용할수 있는 거대한 자원이 있다.

오늘날 국가발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국제적인 추세로 되고있는 우주개발에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있으며 우주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고있다. 우주과학기술은 나라의 종합적국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징표로, 최첨단기술경쟁의 초점으로 되고있으며 우주는 날을 따라 인간과 더욱 가까워지고있다.

일찌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주정복의 원대한 구상을 펴시고 우주개발의 새 력사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이미 자기의 독자적인 힘과 기술로 우주정복의 길을 개척한 공화국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주강국으로 더 힘차게, 더 빨리 도약하고있다.

그이의 결심과 의지에 따라 우주강국건설을 지향하고있는 조선은 우주개발기구를 선진과학기술의 요구에 맞게 확대강화하고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들을 쏘아올리는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우주개발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행하고있다.

공화국의 평화적우주리용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있을 때에 얼마전 우주과학부문에서는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상분출시험에서 성공하였다. 시험을 통하여 추진력을 비롯한 발동기의 기술적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되었으며 모든 계통들의 특성값들이 안정하게 유지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대출력발동기의 완성으로 정지위성운반로켓을 개발완성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고 지구관측위성을 비롯한 각종 위성들을 발사

할수 있는 운반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날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은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상분출시험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개발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우주과학기술과 우주산업은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각이한 용도의 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여 우리 나라를 가까운 몇해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우주정복의 길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사변은 과학기술강국, 우주강국건설을 구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비범한 령도와 자력, 자강으로 최첨단기술을 돌파하는 주제과학기술이 낳은 자랑스런

오늘 지구상에는 풍부한 자

원과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주를 정복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수다하다. 또 위성제작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하여도 발사체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공화국은 남의 힘, 남의 손을 빌려서가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의 지혜로 우주강국의 지위에 올랐다. 남들처럼 좋은 환경속에서가 아니라 적대세력의 항시적인 제재와 압력, 끈질긴 방해책동속에서 허리띠를 조이며 누구나 쉽게 이룰수 없는 세계최첨단과학기술의 령마루에 당당히 올라선것이다. 적대세력의 전대미문의 포악무도한 조강도제재속에서도 자립의 마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자력의 동음을 더 크게 울리며 자강으로 흥하는 강국의 래일을 앞당겨오고있다.

를 박차고 만리대공으로 치솟아오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적확색화염과 거대한 메아리는 적대세력의 제재에 맞선 공화국의 명쾌한 대답이었다. 우주정복자들에게 연구과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며 우주개발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고무격려하시고 때로는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도 현지지도하시며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개발과 발사, 관제에서 나서는 과업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우주개발분야에서는 기상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관측위성개발에서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되고 위성개발의 새로운 높은 수준인 정지위성연구활동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강력은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으로 자기 앞길을 개척하는 힘이다. 생명체가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수 없는것처럼 나라나 민족이 자강력이 없으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없다.

자강력의 높이이자 국력의 높이이고 번영의 높이이다.

자력으로 개척한 조선의 위성개발 및 발사국의 지위는 누가 부정한다 해서 달라지지 않으며 우주정복과 평화적인 위성개발은 조선이 결심하고 택한 길이고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하는 최첨단돌파전이며 세계로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자주적권리행사이다.

우주조약과 같은 국제우주법에도 규제된바와 같이 우주공간의 평화적개발과 리용은 모든 나라들의 신성한 평등적, 합법적권리이다.

조선의 자주, 자강, 자립의 평화적인 우주개발과 위성제작, 발사기술에 대해 세계의 공정한 여론은 전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하고있다.

《주체사상이 우주에 도달하였다.》, 《조선은 적대세력의 부당하고 범죄적인 제재위협에 절대로 굽어들지 않는다.》, 《조선이 자강력을 발휘하여 이룩하고있는 위성발사와 같은 모든 성과들은 정의는 조선인민의 편에 있다는것을 증명하고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도전도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공화국의 결심과 의지를 흔들수 없다.

조선의 위성은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싣고 최고수뇌부가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우주를 향해 앞으로 더욱 기세차게 날아오르게 될것이다.

김춘원



지금 철령아래 자리잡은 고산과수종합농장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과일대풍이 펼쳐져 온 나라에 기쁨과 환희를 안겨주고있다.

가지마다 주먹만 한 사과들이 주렁주렁 하늘땅에 사과향기 차넘치고 물감을 들인것만 같은 빨간 사과들로 하여 마치 철령아래에 붉은 주단을 펼쳐놓은듯 한 이 장쾌한 풍경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호뭇하게 해주고있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세계굴지의 청춘과원으로 전변된 고산과수종합농장의 끝간데 없이 펼쳐진 사과나무마다에 먹음직스러운 사과들이 가득 주렁진 현실은 흥하는 공화국의 기적과 전변의 모습을 더욱 이채롭게 해주고있다.

사과는 예로부터 우리 조선

철령아래 사과바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다. 특히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사과들은 맛도 달고 쫄하여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이 가는 자주와 선군의 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비범한 제재수동에 매달리며 매일같이 갖은 악착한짓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써도 놀래울수 없는것이 자주와 존엄에 사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고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는것이 자강력의 기치높이 나아가는 공화국의 진군길이다. 고산땅에 펼쳐진 사과바다, 과일대풍은 이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

민, 만남시련을 이겨내며 조선로동당을 충직하게 받아들인 인민들을 행복의 절정에 올려세우시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 인민이 잘 살고 행복해지려면 오직 믿을것은 자기 힘밖에 없다고 하시며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심어주신 그이이시다.

찾으시는 공장과 농촌, 어촌과 사회주의대건설장들마다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전진하고발전할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무한대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이 땅에서는 년대

와 년대를 뛰어넘는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계적경쟁력을 가진 국산제품들이 쏟아져나오고있다. 고산땅에 펼쳐진 풍요한 과일작황도 현명한 그 령도의 손길아래 마련된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세해전 이 농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언제나 마음써오신 아버지장군님의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 이듬해 또다시 그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고산과수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무릉도원으로 꾸리려고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것으로써 농장력

사의 갈피갈피를 세세년년 빛나게 기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또 언제인가는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가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정말 우리 장군님의 천만고생과 맞바꾼 사과꽃향기이고 사과열매향기이라고, 우리는 그 향기를 가슴에 정히 품어안아야 하며 고산땅이 꺼지게 해마다 사과풍년을 안아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하기에 고산땅이 생겨 처음 보는 과일대풍을 안아왔다는 소식을 보고받으시고는 그리도 기쁘시어 얼마전 또다시 이곳을 찾아주시었다.

가지마다 주렁진 잘익은 사과들을 보시며 고산땅의 풍경은 보고 또 보아도 싫지 않으며 불수록 기쁨과 환희를 더해준다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면서 이런 풍경은 이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찾아볼수 없을 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가지

가 휘도록 주렁주렁 열린 사과알들과 하늘땅에 차넘치는 과일향기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한그루, 한그루의 과일나무마다에 자기들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농장종업원들의 당에 대한 충정심, 불타는 애국심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그리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자기들의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 고산땅에 펼쳐놓은 과일대풍, 풍요한 사과향기는 자기 힘을 믿을 때 이 땅에 반드시 행복의 래일이 오고야말것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진정 고산땅에 차넘치는 사과향기,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향기, 과일향기가 아니다.

그 향기는 시간을 강국건설의 숨결이고 인민들이 머지않아 향유하고 마음껏 누리게 될 행복의 향기이다.

김새벽



민족의 넋이 살아있는 내 조국이 제일

예로부터 평양을 버들이 우거진 수도라는 의미에서 《류경》이라 불려왔다. 이른 봄에 버들가지가 휘날어지고 온갖 꽃이 만발한 평양의 경치는 이 세상 어느 경치에도 비길수 없을만큼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그런 평양에 최근 몇해사이 《류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연이어 일떠서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류경원, 류경치과병원, 류경김치공장, 류경장미원... 부르기에도 좋고 친근감이 안겨오는 그 이름들을 새겨보느라면 판이한 두 제도의 실상이 안겨와 생각이 깊어지곤 한다.

27년전 내가 의거입북하여 평양 시내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 받았던 충격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때 내가 들었던 숙소는 보통강반에 자리잡은 려관이었는데 건물도 멋있었지만 내 마음을 더욱 끌어당겼던 《보통강려관》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때 나는 흥분속에 《보통강려관》이라는 이름을 입속으로 외우고 또 외웠다. 그후 평양 시내를 돌아보면서도 인민대학습당, 풍년지집집, 은정차집, 황금벌역, 평양고려호텔 등의 간판들에서도 눈길을 떼

지 못하였다. 민족의 넋이 사라지고 남의 정신이 뿌리내린 곳, 자기의것은 간데없고 온통 남의것이 판을 치는 남조선땅에서는 볼래야 볼수 없고 들을래야 들을수 없었던 포근한 우리 이름들이었다.

거기에는 우리의것, 우리의 문화, 우리의 민족정신과 넋이 맥맥히 살아숨쉬고있었다. 외세가 마음대로 살판치는 《남이 사는 내 땅》에서 근 40년을 살아온 나로서 내 나라, 내 민족의 말과 글이 이처럼 참신하고 아름다운줄을 그때에야 알게 되었다.

내가 공화국에서 살아오면서 느낀것은 이 땅에 일떠서는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은 위치선정으로부터 건물의 지붕에 이르기까지 주체성, 민족성이 차넘치고있다는것이다.

내가 한 일군에게서 들은데 의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승리한 매일에 일떠서게 될 평양을 조선맛이 나게 건설할때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고 이를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고 한다.

정말이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이 그 어디에나 어려있는 내 조국이다.

평양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인민대학습당만 놓고보아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민족적특색이 살아나는 합각지붕형식에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사랑한 기리기때가 날아가는것만같은 인민대학습당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곤 한다.

내가 살던 서울에도 제 나름대로 《자랑》하는 건물들이 적지 않지만 건물의 내용과 형식은 물론 건물간판에 이르기까지 전부 어느 나라에서 따왔는지, 훔쳐왔는지 제것이란 없는 오가잡탕이다. 도꼬인지, 런던인지, 뉴욕인지 모를 혼란된 속에서 사람들도 점차 이질화되어가고있는것이 남조선의 비극적현실이다.

그러니 진정한 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고 력사국의 자존이 맥맥히 높뛰는 내 조국이 얼마나 좋은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애족의 령도따라 민족의 우수성을 더 활짝 꽃피우며 존엄높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가는 우리 공화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 교수 박사 정규진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만수교고기상점이 자리잡고있다.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상업부사지인 이 상점은 외형부터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청신한 감을 주는 색채어들, 푸른 유리를 씌운 물결모양의 곡선미, 물위에 떠있는 배갈기도 하고 헤엄치는 물고기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만수교고기상점의 외형에 끌려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은 화려하고 정교한 상점내부와 봉사원들의 친절성, 신선하고도 값죽은 상품들에 반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한번 와보고는 또다시 와보고 아무리 멀어도 우정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어찌 그렇지 않랴.

우아한 무리들과 특색있는 조명장식, 은근하면서도 상쾌한 정서적감흥을 자아내는 상점안이 어찌나 정갈한지 개업한지 여러해가 지났지만 금방 문을 연 상점인듯 한 감을 준다.

1층 산물고기매대의 크고작은 수조들에서는 철갑상어, 뱀장어, 통정어, 잉어, 자라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갖가지 수산물가공품들이 가득 들어찬 상점에서 물고기의 조리방법과 어떤 물고기는 어느 병치료에 좋은가 하는 치료효과에 대해 설명해주는 봉사원들의 친절 한 모습은 꼭 사랑스러운 친 딸들 같다.

2층에 있는 육류매대와 알류매대에서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비롯한 고기들과 닭알, 오리알을 비롯한 알류들을 녹은 값으로 받아들이고 웃음짓는 사람들을 보느라면 마음이 절로 흐뭇해진다.

이 상점을 자주 찾으면서 이제는 구면이 되었다는 손님들을 바라보느라니 이곳 봉사원들의 수고가 헤아려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들이 덕을 본다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하신 그날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안고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등을 짜고들고있는 이곳 봉사원들이다.

이들은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과학자들, 결혼식을 하는 가정들에 대한 봉사를 비롯하여 봉사를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이들의 성의가 상점을 찾았던 손님들이 자기들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한 두툼한 반영문을 그대로 어려있었다.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린 이곳 상점에서 신선한 고기류들과 알류들을 봉사받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구봉령일가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로관리를 더 잘해나가겠다는 결의들을 피력한 평양시 대동강구역 도시시설관리소의 종업원들,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해빛은 어디에나 골고루 비쳐든다며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설 마음을 피력한 평양시 만경대구역상하수도관리소 종업원들...

깊은 생각에 잠겨 반영문을 한장한장 번지는 기자에게 림미옥부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보통강반의 명당자리에 몸소 우리 만수교고기상점부지를 잡아주시고 2012년 1월과 3월 상점건설장을 찾으시어 공사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

시였습니다. 2012년 4월 준공을 앞둔 우리 상점을 찾으시어 아버지장군님께서 최상의 봉사 수준을 갖춘 이곳 상점을 보시었다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신 원수님이십니다.》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상실의 아픔이 누구보다 크시였건만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고기상점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여러 차례 건설장을 찾으시어 이곳 고기상점은 인민들이 즐겨 찾는 상점인 것만큼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건설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아래 만수교고기상점이 오늘날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이 즐겨 찾는 상점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최창욱지배인은 구미에 맞는 고기제품들을 골라 들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봉사자의 긍지를 한껏 느낀다고 하면서 더 많은 고기제품들을 확보하고 봉사활동을 더 개선하여 인민들이 즐겨 찾는 상점,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는 상점으로 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주민지기가 밀집된 곳에 위치하고있어 사람들이 쉽게 오갈수 있을뿐아니라 점심시간에도 중단없이 봉사하여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만수교고기상점을 인민들 누구나 좋아하고있다.

인민들이 좋아한다 -만수교고기상점에서-

들에 그대로 어려있었다.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린 이곳 상점에서 신선한 고기류들과 알류들을 봉사받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구봉령일가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로관리를 더 잘해나가겠다는 결의들을 피력한 평양시 대동강구역 도시시설관리소의 종업원들,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해빛은 어디에나 골고루 비쳐든다며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설 마음을 피력한 평양시 만경대구역상하수도관리소 종업원들...

깊은 생각에 잠겨 반영문을 한장한장 번지는 기자에게 림미옥부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보통강반의 명당자리에 몸소 우리 만수교고기상점부지를 잡아주시고 2012년 1월과 3월 상점건설장을 찾으시어 공사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

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건설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아래 만수교고기상점이 오늘날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이 즐겨 찾는 상점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최창욱지배인은 구미에 맞는 고기제품들을 골라 들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봉사자의 긍지를 한껏 느낀다고 하면서 더 많은 고기제품들을 확보하고 봉사활동을 더 개선하여 인민들이 즐겨 찾는 상점,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는 상점으로 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주민지기가 밀집된 곳에 위치하고있어 사람들이 쉽게 오갈수 있을뿐아니라 점심시간에도 중단없이 봉사하여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만수교고기상점을 인민들 누구나 좋아하고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인정의 화원에서 우리는 행복

남을 생각하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백년, 천년이 가도 도저히 지어낼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아름다운 미풍이 공화국도처에서 활짝 꽃피고있다.

어딜가나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해 자기를 아끼고 보람을 찾는 사람들을 만날수 있고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미담들을 들을수 있다.

그 무수한 미담의 주인공 곁들가운데는 평양시 대성구역 룡흥 1동에 살고 있는 장정학도 있다. 그의 안해 박영주녀성은 하반신마비의 장애자이다. 불편한 몸인것으로 하여 언제한번 사랑하는 안해와 버들가지 휘날어진 강변을 다정히 걸어보지 못하였지만 이들은 못사람들이 부러워할만큼 행복한 부부로 소문이 자자하다.

10여년전 푸른 하늘가에 락하산을 펼치고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박영주녀성의 담차고 멋진 모습에 끌려 사랑을 고백한 장정학이었다. 맑은 하늘처럼 한점 그늘없을듯싶

던 이들의 사랑에 뜻하지 않는 불행이 생길줄 어이 알았랴.

《락하훈련증 뜻밖의 일로 하반신마비가 와 신수생활은 물론 녀성으로서의 구실도 할수 없다는 청천벽력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 솔직히 애아버지와 관계를 포기할 생각도 없지않았습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처

녀의 땀과 푸른 꿈이 어려있는 락하산이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말 복잡했습니다. 만자식인 제가 부모님들에게 따뜻한 밥상한번 차려줄수 없는 녀성을 안해로 삼았다가 일생 후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락하산신수생활을 하면서 1500여회의 락하기록

을 세우고 국내락하산경기들에서 수십개의 금메달과 컵을 수여받은 용감한 처녀, 언젠가 3000m 고공에서 고배비행을 하면서 날아내리다 700m높이에서 락하산을 활짝 펴고 웅장화려한 평양의 전경을 보며 온 세상을 안은듯 한 기분에 휩싸였다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처녀, 노래를 불렀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즐겨부르고 꿈을 꾸어도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고 남자락하산선수들도 넘기 힘들어하는 극한점들을 넘으며 영원히 락하산과 운명을 함께 하며 푸른 하늘을 날겠다면 박영주녀성이었다.

비록 몸은 침상에 매였어도 마음은 언제나 푸른 하늘에 두고 경애하는 원수님 가장 가까이로 날고싶어하는 처녀의 마음은 장정학의 심금을 더욱 세차게 울려주었다.

(내가 그의 일생의 길동무가 되어 억센 나래가 되어주고 마음속그늘

을 가져주는 등불이 되리라.)

그로부터 얼마후 그들은 만사람의 축복속에 결혼식을 하였다. 그후 이들의 생활은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속에 흘러갔다.

대성구역 룡흥1동에서 살고있는 그들의 집은 동일군들이 자주 찾아와 애로되는것이 없는 가를 알아보고 동주민들은 언제나 살뜰한 친형제가 되어주었다. 대학생들, 교통보안원들, 의료인들을 비롯하여 이료인들을 비롯하여 이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정을 안고 찾아올 때마다 박영주녀성은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곤 하였다. 그 포근한 진정속에 자식을 볼수 없었던 박영주녀성이 떡돌같은 아들을 낳았다.

지금 창광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은 피아노를 전문으로 배우주는 교양원과 생활과 건강을 돌보아 주는 교양원, 공부를 배워

주는 교양원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구김살 없이 자라고있다. 아들의 생일날이면 친어머니심정으로 새옷을 안겨주고 생일상도 차려주는 유치원 교양원들의 진정은 다 헤아릴수 없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고마운 인정의 세계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을 누리고있는 박영주녀성.

한발자국도 걸을수 없는 박영주녀성이 오늘까지 푸른 하늘가에 마음을 얹고 생의 회열에 넘쳐 락천적으로 살고있는것은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남을 위해 뜨거운 사랑을 바쳐가는 장정학과 같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의 세계에 몸담고 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진정 인정의 화원이 이 땅에서는 육체적불구는 있을수 있어도 마음속에 그늘을 안고사는 사람은 없다. 은혜로운 사랑의 태양이 빛을 뿌리는 공화국의 그 어디에나 불행이 있을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는것이다.

본사기자 고영숙



장정학(왼쪽에서 두번째)과 그의 안해 박영주(가운데)

